

# “광주 인공지능 인프라·인재양성 세계가 주목”

### 강기정 시장, 국회도서관서 열린 AI 서울포럼 창립기념식 참석

강기정 시장은 지난달 31일 “오는 10월이면 세계적 수준의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가 광주에 문을 연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 2단계 조성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다리도 촘촘히 구축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는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AI SOUL(인공지능 서울) 포럼 창립 기념식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야기할 개인과 사회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공론의 장을 열어줄 AI SOUL 포럼의 창립을 축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 들었으며, 인공지능을 광주의 전략산업으로 삼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얼마 전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바드에 대한 한국 인공지능 대표도시가 어디인지를 물었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광주시·경기연구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이 후원한 AI SOUL 포럼 창립 기념식에 강기정 시장이 참석해 김민석 의원, 투피 살리바(Toufi Saliba) 국제전기통신협회(ITU) TEM AI포럼위원장,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CA) 단장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니, ‘광주광역시’라고 대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강 시장은 “실제 광주는 100개가

넘는 인공지능 기업과 창업자들, 국내 유일의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이 구축

되고 있다”며 “아동부터 중등생, 대학생, 그리고 전문인력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인재양성사다리를 광주 인공지능의 자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세계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과 윤리, 표준화에 대한 작업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광주는 앞으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인공지능 윤리, 글로벌 표준 제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행사에 참석한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광주 첨단3지구에 조성 중인 인공지능 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소개한 뒤 챗GPT 활용법을 시연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AI SOUL 포럼은 정계·학계·산업계 등이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과 윤리규범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주기적으로 교육·의료·기술 등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열어 법제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 광주시 ‘투자·인프라·인재’ 3대 전략 추진

### 창업의 관문으로… 광주역서 창업성공도시 광주 시민보고회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를 선언한 광주시가 투자·인프라·인재양성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역에서 창업 성공도시 광주 시민보고회를 열고, 창업 성공도시로 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전 세계가 신성장동력으로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유니콘기업이 탄생하고 있는 만큼 창업기업은 광주의 미래이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창업 성공률이 높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는 필요조건과 엔젤투자자·창업기업·벤처캐피탈 등이 광주에 몰 수밖에 없는 충분조건이 맞물려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인프라·인재로 연결되는 창업성장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 곳 광주역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고,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며 “이 곳은 과거 호남권 교통의

관문에서 창업의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역 일대는 호남권 최대 창업벨리(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광주형 테스타베트 조성예비유니콘 10개사 육성 등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비전을 선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000억 창업펀드 조성 ▲실증 지원사업 ▲광주창업페스티벌 등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또 민선 8기 창업성공도시 종합계획을 마련, 오는 2027년까지 신규 25개 사업을 포함 총 4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성공의 첫 열쇠로 꼽히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는 5000억 창업펀드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문화 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술력 있는 유망 스타트업이 보다 쉽게 투자받을 수 있도록 기술창업기업을 위해 3259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중이다. /김도기 기자

## ‘복지건강국→돌봄건강국’ 명칭 변경 검토

### 시 “광주시민 돌봄 책임지겠다…정책적 의지 표현”

광주시가 복지건강국의 부서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복지건강국을 돌봄건강국으로 변경하는가 하면 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부서 명칭 변경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의 복지건강국은 복지정책과·고령사회정책과·장애인복지과·건강정책과·감염병관리과·위생정책과로 구성돼 있다. 돌봄건강국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복지정책과는 돌봄정책과로 명칭이 바뀐다. 나머지 부서는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광주시는 최종안을 확정하기 앞서 시민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의 복지건강국과 돌봄건강국 중 어느 명칭이 더 나은지를 묻는 한

편 광주시의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묻는 설문이다.

민선8기 대표 복지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 목표다. 시민 누구나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의 경우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초과하는 시민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민의 신청이나 동행복지센터의 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례가 접수되면 동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한다. 이후 1대 1 맞춤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선주 기자

## 여름철 가축피해 예방 142억 투입 ‘총력’

### 전남도, 1~10월 ‘축산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전남도가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전남도는 142억원을 투입해 폭염·태풍·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단계별 축산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올해 6~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무더위를 예보한 가운데 엘니뇨 현상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전남도는 ‘여름철 축산 재해·재난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축산 분야 자연재해 피해 예방활동 강화·단계별 대응 대책’ ‘가축 자연재해 피해 예방 지원 사업’, ‘가

축재해보험 가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축산 분야 자연재해 피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단계별 대응 대책으로는 재해 취약지역 축산농가 2242호를 대상으로 축사시설과 전기설비, 냉난방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여름철 재해 유형별 축사·가축관리 요령 홍보물을 제작해 축산농가에 배부하고 기상 특보가 발령되면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재해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 체제 유지를 위해 1일부터 10월15일까지 ‘축산재해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김도기 기자

## 광주시, 여름철 축산물 특별 위생점검

### 1~21일 제조·유통·판매업소 90곳 대상

광주시는 광주보건환경연구원·5개 자치구와 함께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특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간은 1일부터 21일까지다.

이번 점검은 소비가 많은 휴가철 캠핑용 식육·포장육과 식육가공품, 아이스크림·우유 등 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에 등록된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판매업 등 90곳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시는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관리 ▲기계류와 작업장 청결

유지 ▲보존·유통기준(냉장·냉동) 준수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재점검을 한다.

축산물의 변질·미생물 오염 등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점검과 동시에 축산물을 수거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에 검사를 의뢰한다.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하고, 식품안전나라시스템 등록 등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 차단한다. /권현안 기자

## 전남도, 통합적 취업서비스 구축

### 고용노동부 목표지청과 고용·복지연계 협력 추진

전남도가 저소득층 자립을 돕기 위해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구축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목표지청과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협업체계 구축’ 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함인권 고용노동부 목표지청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긴급복지

사업 참여자 중 취업을 바라는 사람의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제공해 구직자가 집중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노동부 목표지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남지역 참여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하고 전남도 복지·고용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권현안 기자

# ‘인공지능(AI) 선도도시 광주’ 혁신의 바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선진화된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 광주 병의원에 진단보조솔루션을 도입해 의료진의 진료 정확도를 높입니다.

둘, 소방본부에서 운영중인 구급차와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인공지능(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AI앰블런스)을 도입합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응급환자 투송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센터에서 개인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기초체력·검진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 시민들은 공공의료앱으로 직접 건강데이터를 관리·활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광주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의료기관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